

2019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송산동(보목동) 한기팔 씨 댁, 문순덕 · 김은정 조사.  
한기팔(남, 1937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 서귀포시 보목동 출생으로 대학과 군대생활만 타지에서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보목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옛날 대정현에 크고 영리한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흥년이 들어 개 주인은 무명을 팔려고 개와 함께 장터로 가다가 화적떼를 만났는데 개가 화적떼와 싸우고 무명을 지켰다. 훗날 개 주인이 개를 사냥꾼에게 팔고 죽었는데, 개가 주인 무덤에 계속 찾아왔다. 개 주인의 부인은 개가 죽자 개 묘를 만들어 주었다.

[제보자] 아니 육지만 보은, 은혜를 갚는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있었거든. 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대정현.

[조사자] 은혜 깊은 개?

[제보자] 은혜를 갚은 개는 뭐냐면 저쪽 어디야? 대정. 옛날 대정현 애긴데 육지는 은혜 깊은 개비가 서 있고 그렇지. 전라도에 가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대정에는 그런 비가 선 게 아니라 무덤. 개 무덤이 주인하고 나란히 묻혀 있는 거. 개가 개로 하여금 주인이 생명을 건지니까 그 나중에 개를 거 주인 옆에 묻어. 부인이.

옛날 대정현에 크고 영리한 개가 있었어. 숭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개 주인이 무명필. 그 당시 무명을 가져서 쌀로 바꿨을 먹었거든.

[조사자] 아, 무명천예.

[제보자] 무명천. 토평 와. 토평 와서 대게 그걸 하는데 무명필을 거두어 정잇골로 와서 팔아서 양식을 사다가 숭년이 어려움을 견뎌볼 요량으로 하루는 개 주인이 무명 다섯 필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 주인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마당에 누워 집을 지키던 개가 주인을 따라 나서는 것이었주.

주인이 따라나서는 개를 보고 쫓아오지 말라고 집으로 가라고 타일러도 가지 않고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주인보다 먼저 앞을 나서 먼 길까지 나와 주인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는 모습을 보이면 앞들로 달아나.

대정고을을 벗어나면 뒤를 돌아봤을 때 개는 이미 이제는 자기를 떼어 놓지 않을 것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거라. 산방산 굴부리에 이르러 개와 주인이 그곳에 세워 놓은 비석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화적떼를 화적떼 그난 도적떼지. 도적들은 그 당시에 도 쌀 같은 거 장사하는 사람이. 화적떼들이 나타나 다짜고짜 개 주인을 겁박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옆자리에 내려놓고 있는 짐보따리를 가르치며 물었주.

“무명짐이오.”

“그걸 지고 어딜 가는 것이냐?”

“숨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정의고을에 가서 이걸 팔고 쌀이나 사다가 처 자식들의 허기나 메울까 하여 가는 길이오.”

하니

“그런가? 허 당신은 그것이라도 있으니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린 그러지 못하니 이를 어찌나, 그걸 우리에게 내려놔야겠소.”

화적떼에게 무명을 빼앗기지 못하면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하니 겁이 덜컥 났지. 무명필을 팔러가던 개 주인이 옆에 있는 무명짐을 가리키며 화적떼에게 가져가라고 허락했지. 화적떼들은 개 주인의 겁박을 풀어주고 무명짐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지. 개 주인은 이 먼 곳까지 무명을 지고 와서 화적들에게 빼앗긴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억울한 거라. 그래서 담배만 푹푹 빨며 한숨을 쉬고 있노라니 그때 따라온 개가 화적들의 뒤를 쫓아 달아나는 거라.

얼마쯤 지나니 화적들을 따라갔던 개가 무명보따리를 물고 질질 끌며 돌아왔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는 원래 백구였는데 황구가 된 거라. 그 개가 주인이 무명짐을 빼앗고 가는 화적들 뒤를 쫓아와 주인이 빼앗긴 무명보따리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며 물어뜯고 할퀴고 땅바닥에 뒹굴며 화적들이 싸우다보니 피가 흘러 피와 흙이 범벅이 되어 온몸이 황토빛으로 변한 거지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쫓았는데 따라와 기어코 큰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흙과 피투성이가 된 개를 옆에 있는 금물로 가서 씻어내고 다시 흰 개

로 만들어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정잇골 토평마을로 왔인다. 그리하여 찾아간 곳이 이름난 사냥꾼의 집이랴.

옛날부터 한라산에는 식생들이 무성해서 산짐승들이 생활하기 최적지였인디 정상이 가까운 곳에는 사슴과 노루가 곳자왈에는 산돼지와 너구리와 토끼들이 살았어. 산간마을에서는 어딜 가나 사냥꾼이 잇었지게.

그래서 이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팔아 생활하는 사람을 제죽말로 사냥바치라 하느디. 그런 사냥바치 집에는 어디나 사냥개를 데리며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토평에 개를 데려가니까 그 사냥바치가 개를 팔라고 해요. 팔아 달라. 사냥을 하겠다고.

[조사자] 근디 안 팔아마씀?

[제보자] 근디 안 팔려고 하니까 자꾸 돈을 더 주니까 팔았지. 팔았는데 이 개가 사냥바치 집에 살질 않고 사냥만 같이 가서 하고는 밤에는 지 주인 집에 돌아가.

토평에서 대정까지. 밤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사냥한 먹잇감을 가지고 물고 돌아가. 그걸 자꾸 매일 밤 하는데도 타일러도.

[조사자] 오는구나예.

[제보자] 타일러도 와. 그렇게 하는데 개가 그 개 주인이 죽어버렸어. 개 주인이 죽어버리는데 사냥개가 토평 와서 사냥하고 사냥거리를 물고 가서 보니까 옛날 주인이 죽어버리니까 이젠 그 무덤을 주인 간 무덤을 냄새로 맡아가지고 무덤을 찾았어.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무덤을 파면서 무덤을 파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개가 쓰러져 그 자리에 죽어버련.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자리에 묻어주고. 그래서 그게 개 묘.

• 핵심어: 무명, 화적떼, 무덤, 개, 숭년(흉년), 사냥바치(사냥꾼), 개묘, 대정현